

서울시 '알권리 위축'... 시민들은 안다



기자 수첩

김현정
(정책사회부)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청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이다. 서울정보소통광장은 도시관리·안전·복지 등 시 내부에서 생산된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중구 교통사고(7. 1. 21:27경)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람'이라는 제목의 결재 문서가 눈에 띄어 클릭했다. 안에는 '1. 2024. 7. 1.(월) 21:27 중구 태평로2가 113-1 시청역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관련, 2. 사고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한 시장 지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은 시행에 철

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 지시사항이 나오겠군.' 하는 생각을 하며 다음 줄로 시선을 내렸다. 허나 비공개처리 돼 있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내 행정 정보는 크게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3개 항목으로 분류돼 게시된다. 중구 교통사고 관련 시장 지시사항 알람 공문은 '부분공개' 처리돼 있었지만, 사실상 '비공개'로 보는 게 맞다. 해당 문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중요 정보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 너머서울 등 9개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민 배제 불통·편파 행정이었다.

노동사회시민단체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상 회의 공개가 원칙임에도 비공개한 것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

겠다며 추진한 한강 수상버스사업의 심사가 제대로 진행 및 공개되지 않은 점 ▲'리버버스 도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 다수의 알권리 위축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날 오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는 때로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 유리될 때도 있다"며 "10년 전 토건 반대를 구호로 외쳤을 때 멋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외칠 때 멋있었다. 그 결과가 어땠나. 시민들은 안다. 시민단체는 애써 외면하지만 시민들은 안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을 많이 쓴다고 비판하면 그건 팩트가 틀린 비판"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근거로 든 팩트를 애써 외면하는 게 누군지도 시민들은 안다.

/hjk1@metroseoul.co.kr

이화의료원 "남녀 모두를 위한 '성차 의학' 연구"

이화의료원-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과학기술인 육성, 국제협력 추진 MOU 성별 고려한 의학으로 젠더혁신 이룰 것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남녀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이라는 포용적 가치에 기반을 둔 연구에 나선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6월 28일 이대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이화의생명연구원이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와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화의료원과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는 '성차 의학'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성별 특성을 간과한 연구 데이터 적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손실이 많다는 것이 이화의료원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양 기관은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교류 ▲특별전시회, 강연회, 연례회의,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을 약속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이화의생명연구원-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업무협약식'에서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왼쪽)과 이향은 이화의생명연구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양 기관은 향후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국제협력 등 사업협력 추진을 위한 세부 협력과 실무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향은 이화의생명연구원장은 "남녀의 성별을 고려해 의학을 연구하고 진료를 해

온 것은 이화의료원이 국내 최초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을 육성·지원하고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지원해 미래까지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젠더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향하 기자 mlee236@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 5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식이 짝을 데려오니 마음이 흐뭇하다. 48년생 세상에 나의 스승이 아닌 것이 없다 했다. 60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끊어라. 72년생 사랑도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 84년생 시작은 좋으나 끝은 흐지부지될 수.



37년생 자녀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지 않은지 체크. 49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1년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73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지만 우기지는 마라. 85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특히 돈거래에 주의.



38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 5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62년생 삼재팔난처럼 조심하여 평온을 찾자. 74년생 일과가 너무 바빠도 우편물은 좀 더 살펴라. 86년생 새로운 것을 배워보라.



39년생 실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5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 온다. 87년생 자식 기대에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라.



40년생 약속 앞에서 마음이 혼란하면 독서로 달래보라. 52년생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날. 6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76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라. 88년생 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41년생 잠시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라. 53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65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다. 77년생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다. 89년생 흥년생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42년생 정보획득이 중요하니 컴퓨터를 배워 발전시키자. 54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 되는 것. 6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78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90년생 오늘 나를 위해 지출을 해보도록.



4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써라. 55년생 일체유심조로 세상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겠는가. 67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79년생 공부로 위기탈출 해야. 91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자.



44년생 결혼생활은 배려와 존중이 가장 중요. 56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가라. 68년생 종로에서 뱀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한다. 80년생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92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많으니 차분히 계획.



45년생 힘든 시절을 고생한 배우자의 산소 가는 날. 57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청의 힘이 빛을 발한다. 69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81년생 이직했지만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을 느낀다. 93년생 주변 친구에게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온다.



46년생 자녀와 교감을 가져라. 58년생 자신 손안에 이미 열쇠는 있다. 70년생 당장은 부족해도 꾸준한 노력해야 할 듯. 82년생 삶은 수확적이며 과학적이지 부지런함으로 움직여보라. 94년생 만나기 어려운 기회는 아니지만, 항상 기회는 온다.



47년생 남이 먼저주는 희망에 공연히 기대가 크다. 59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날. 71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유리. 83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95년생 마음에 없는 칭찬은 차라리 하지 말도록.



김상회의四季 자리이다

부모의 몸에서 입태立胎되면서 인연因緣은 시작되니 탄생 전에 팔자는 예고된다. 팔자 합 중에서 합이 없으면 서로가 타인이다. 월과 시에 합이 있으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직장 재물 수명 사는 집 속에서 문질 곳 등 인연법 안에서 작용한다. 명당 명당 하는데 명당이 팔자가 좋아야만 찾가지고 명당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각기 사주팔자를 펼쳐보는 것일 거다. 어느 풍수장이는 상담자의 사주를 안 본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무덤 집 땅 재물등 관련된 얘기는 무슨 말인들 하겠으나 박사라 한들 사주풀이가 어렵고, 끝도 없고 어긋나면 미신 사이비란 얘기가 바로 나오니 이해는 간다.

그 팔자의 부호가 드러나 있는 관상이라도 봐야만 명당의 인연을 찾아볼 수 있다. 여하튼 직장에서 상사와 자주 충돌하는 사람이 있다.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관운이 따르지 않는다. 어쩌다 관운이 생겨도 곧바로 시들고 만다. 실력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실력이 있고 소신이 강하고 그 결과로 자주 충돌이 생기니 본인도 직장도 손해다. 본인은 실력 발휘할 기회를 놓치고 직장은 업무 실력이 뛰어난 직원을 놓치게 된다. 어느 쪽을 봐도 서로 득 될 게 없다.

불교에서 자리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리란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이타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즉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자리이다라는 말을 생각해보 필요가 있다. 한발 물러서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하는 일이다. 실력과 소신과 자기주장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운을 스스로 막아버린다면 실력을 보여줄 기회까지 없어지니 내 팔자를 상식선에서라도 이해하기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도파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9	9	7	6	8	8
9	8	8	9	1	6	7	2
6	2	7	8	2	8	1	9
8	9	1	8	9	2	6	7
7	9	1	6	8	2	8	9
8	6	2	7	2	9	9	1
2	1	9	2	6	7	8	8
2	8	8	2	9	1	9	7
9	7	6	8	9	8	2	1

		7		1		4	8
	2						
			8		4		9
2			3				
1	3					2	4
				6			5
4			9	1			
8	3		5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6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